

생명에는 권력이 없다

-함석헌과 장일순에게 나타난 무위의 상상력-

최종덕

함석헌과 장일순의 노자

최근 씨알 함석헌과 다석 유영모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지난 2008년 여름 개최되었던 세계철학대회에서 유영모-함석헌 한국철학 분과가 우여곡절 끝에 개설되어 성황리에 끝났다. 몇 십 개 되는 많은 분과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마 외국 철학자들의 눈에는 유영모와 함석헌 철학 분과 외에는 한국철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겼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이후 씨알사상포럼이 활발해지고 씨알철학회 준비위원회도 구성되는 등 그 관심이 비상해졌다. 전에는 함석헌 사상이 어떻게 철학의 범주로 들어 올 수 있겠냐고 핀잔을 하던 어떤 철학 교수도 이제는 한국철학의 중심에 씨알 사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함석헌 사상이 늦게나마 이 땅에 자리 잡는 모양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과 그 사상의 이면에 깔려진 철학과 세상을 만나는 사유방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극심했던 독재권력의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려는 함석헌의 철학은 과거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노자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함석헌 사유의 노정을 노자 도가철학의 관심을 통해서 되돌아보려고 한다. 역사적 권력이 우주적 성찰 속에 녹아드는 관심을 말한다. 그런 관심을 말하러치면 함석헌과 더불어 무위당 장일순의 실천사유를 접근해야 한다.

김지하 시인의 스승이었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함석헌이 씨알인 것처럼 장일순의 아호는 '조한알'이었다. 아주 작은 좁쌀 한 알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고 모시라는 노자의 뜻을 품고 있었다. 무위당無爲堂이라는 호를 가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1950년대 20대 나이로 중립화 평화통일운동과 원주 대성학원을 설립하는 교육운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지학순 주교와 함께 농민들의 두레 교육을 하고 오늘의 한살림운동으로 이음끈을 주었다. 1980년대 들어 민초의 삶을 그려내는 수목화의 난초를 치면서, 그의 작품세계 가운데 오늘의 생명사상을 구현하였다. 풀 하나, 벌레 하나, 돌 하나, 바로 이웃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면 된다는 뜻을 지닌 그의 생명사상은 사람에서 티끌까지, 만물에 접하여 서로에게 감동하여 하나가 됨에 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접화군생接化群生이라는 한 마디 말로 그의 생명사상을 재현하기도

한다. 나아가 그의 사상은 기독교와 더불어 전통 유불도 및 동학을 아우르는 종교를 아우르고 있다. 종교의 근간을 영광의 하늘세계에 두기보다는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을 위한 일상성에 두었다는 점이 장일순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다.

이 두 사상가를 함께 보려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노자>라는 관심의 창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낮게 그리고 좋게 하려는 뜻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또한 함석헌과 장일순은 혁명적 이상과 세상의 세간사가 충돌하는 접점들이 돌출되는 사상적 지평선을 노자 사상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상가의 삶과 세상이 충돌되는 이러한 사상적 지평선에서 국가 권력, 역사적 편견과 시대적 선입관에 머뭇거리지 않고 저항하는 동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노자 사상은 통속적으로 이해되듯 은둔과 무욕, 초탈과 도인이라는 탈세간적 이해방식과 달리, 피와 권력을 피할 수 없었던 세상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었기 때문에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함석헌은 그의 스승 유영모를 통해 노자를 배우게 되었으며, 장일순은 어릴 적 할아버지 여운(旅雲) 장경호(張慶浩) 밑에서 한학을 익히며, 목객으로 할아버지와 절친하던 우국지사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에게서 서화를 공부했던 터라 쉽게 노자 사상을 접근할 수 있었다. 어쨌든 유영모로부터 자극된 노자 공부하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한 평생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함석헌이 노자를 접하게 된 생각을 쓴 것이 있다. “나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동양고전 속에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자유하는 민중으로 가는데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데서 공맹이나 노장을 파기 시작한 거지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크게 생각하자는 거지요”(함석헌전집 4권, 188쪽) 세상을 크게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노자 <도덕경>만큼 좋은 고전이 없다고 함석헌은 생각했다. 장일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유부쟁夫惟不爭이라 고로 천하가 막능여지쟁莫能與之爭이니라, 대저 다투지를 앎기 때문에 천하에 누가 더불어서 싸울 자가 없는 거라. 천하 무적이 되는 거지. 이게 뭐 기운이 세어서 천하무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적이 없다고 할까?”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231쪽)

함석헌과 장일순은 노자를 통해 계몽적 요소와 수양적 요소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점이 바로 기존의 노자 해석과 매우 다른 점이다. 기존의 노자 해석 혹은 일반인의 노자 이해는 지나치게 세상을 초탈하고 자연합일의 청정함에 치우쳐 있었다. 이런 해석은 도가에 대한 신비주의 환상만을 줄 우려가 높다. 신비주의 해석의 틀을 벗겨 버리고 현실적 삶의 구체적 동력으로서 노자 사상을 해석하고 현실생활에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함석헌과 장일순이었다. 초탈적 이미지의 노자를 독재권력의 피가 넘쳐난 현실에 적용하려는 극도의 고통을 우리들이 얼마나 느낄 수 있었으려만.

노자에 대한 편견들

2500여 년 전 풍운의 삶을 살았던 노자를 보는 시선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지평선에 놓여져 있다. 그래도 역시 노자를 거들먹거릴 경우 대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욕심을 버려라, 자연과 합일하라, 세간사에 초탈하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회자된다. 나는 몇 년

전에 관련 학술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노자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생각들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수집한 적이 있었다. 동양철학 관련 전공자들을 배제하고 주변의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를 물었다. 물론 보기말 18개를 제시하여 그 중에서 3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내가 이 글을 쓰려는 속마음과 생각이 그 18개의 보기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은 길어도 나열해보자. (시대와 철학, 05년여름호)

춘추전국시대 도덕경으로 잘 알려진 <노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요.
<노자>하면 떠오르는 뜻을 다음의 짧은 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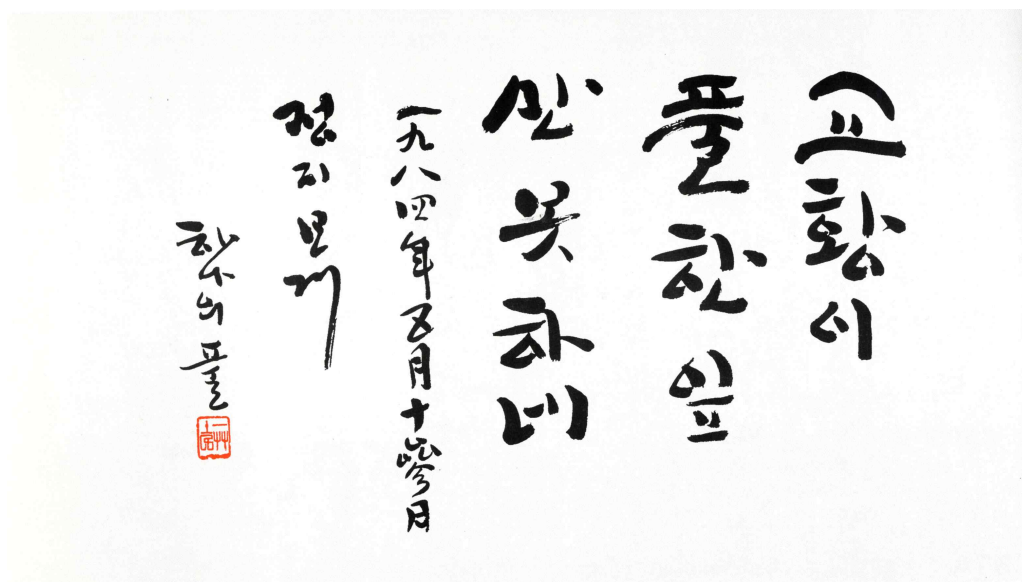
- 1.말로 하는 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 2.은둔과 죽림칠현 3.육망의 절제 4.만물을 낳는 道
- 5.세속의 초탈 6.신선과 도인 7.타고난 분수대로 살아가기 8.자연과의 합일
- 9.다투어서 이루는 것이 없다. 10.생태적 자연과 삶 11.역지로 하지마라 12.낙천주의
- 13.왕과 신하와의 관계론 14.권력무상 15.왕은 말없이 다스린다 16.무정부주의
- 17.작은 것이 좋다-소국과민 18.처세술

노자에 대한 이미지는 자연합일, 육망초탈과 탈언어 등으로 떠올려진다는 점이 설문조사의 대체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노자 무위의 사상은 탈세속을 넘어 은둔과 냉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노자 해석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변적이다. 도가는 한대 이후 정치 권력을 유교집단에 내주면서 항상 이단자로 남아 있었고, 이단으로서의 도가는 언어 대신에 묵언으로, 참여 대신에 성찰로, 집단정치 대신에 개인수양으로 그 영역을 이환시켰다. 나는 이러한 영역 이환을 철학적 차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계론의 차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차이를 인정할 경우, 유가를 참여의 나아감에 상징하고 도가를 성찰의 물러섬이라는 메타포로 단순하게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만 함석헌과 장일순은 유가적 삶의 방식에서 서서히 도가적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 처한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 함석헌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참여와 계몽의 동력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노자를 공부하면서부터 그는 진정한 참여와 계몽이 가능 하려면 내적 성찰과 자연 합일의 자아찾기를 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유가 적 삶과 도가적 삶이 공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장일순은 50-60년대 정치활동과 평화운동 혹은 교육운동과 조합운동 등의 참여와 계몽으로부터 80년 이후 성찰과 무위로 그 삶의 방식이 넓어졌다. 장일순 역시 참여와 계몽을 포기한 채, 성찰과 무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참여와 계몽을 위한 성찰과 무위의 뜻을 강조하였다. 큰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것을 먼저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함석헌의 씨알과 장일순의 조한알(좁쌀)이라는 아호가 바로 그런 뜻을 대신하고 있었다.

함석헌과 장일순은 사유와 실천체계의 중심점을 유가 장르에서 도가 장르로 옮기면서 지역 적 혁명에서 보편적 혁명의 길을 보여주었다. 함석헌에게서 삶의 준거는 민족, 신앙, 과학이 었다. (함석헌 다시읽기, 150쪽; 제2차 씨알사상포럼, 김재현 교수의 논평문 93쪽에서 재인 용) ‘민족’은 자기가 태어난 땅의 마땅한 삶의 근거를 주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뜻을 담 고 있다. ‘신앙’은 그의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하여 유불선을 포함한 통합적인 신앙으로 가는 통로에서 자아와 우주가 서로 만나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과학’이란 단순한 서구자연과학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두루 통하는 보편적인 사유를 뜻한다. 신비주의적이고

주술적이고 맹목적이며 국수주의적이거나 관습적이어서 겨우 부분이나 볼 수 있는 편견이 아니라, 통합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큰 지식이지만 민중들도 이해할 수 있어서 전체를 꿰뚫는 보편성을 뜻한다. 아무리 좋은 교리라도 독단적이라면 그 종교는 과학만 못하며, 아무리 그럴듯한 민족중심주의라도 자기만 잘났다거나 남의 민족을 업신여긴다면 그런 민족은 과학만 못하다는 것이 함석헌의 기조이다. 이 점에서 함석헌이 노자를 공부하고 그 공부의 뜻을 그대로 현실에 접목하려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함석헌이 노자를 만나는 방식은 앞서 제시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 은둔과 초탈, 무욕과 자연합일, 신선과 도인 등의 신비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이해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오히려 그가 공부한 노자는 보편적 인간관, 낮은 사람들의 아픔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언어의 소통, 권위와 명예로 치장된 직접적인 사회참여보다는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의 진정한 혁명을 가져다주는 간접적인 현실참여라는 보편적 길을 제시한 철학자였다. 그래서 노자가 말한 道는 형이상학적인 구름 위의 형상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함석헌과 장일순의 생각이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삶의 지혜인 것이다. 함석헌은 도를 生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노자의 도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전집 2권, 157쪽) 여기서 도가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이나 절대 등급의 신의 위격과 달리, 인간의 생명 속에 도가 있으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도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눈치챌 수 있다. 이 점은 생명사상의 스승인 장일순에게서 더욱 잘 드러난다. 장일순 역시 노자의 도를 생명적인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일순의 1984년 서화작품에는 이런 것이 있다. “교황이 풀 한 잎만 못하네” 이 글은 교황의 지위를 격하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보이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라도 그 안에는 큰 생명이 들어 있다는 뜻을 보이려 한 것이다.



함석헌과 장일순이 이해하는 노자는 결국 신비적인 초탈의 사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으로

삶과 사회의 문제를 건드리는 또 다른 방편인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가와 도가를 구분해서 나누기가 어렵다. 유가는 현실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려는 철학이라고 하며 반면 도가는 세상을 등지고 내면의 성찰만을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식으로, 유가와 도가를 상호 모순적 관계로 보는 통속의 이해방식과 다르다는 말이다. 함석헌과 장일순에게서 도가와 유가는 서로 상충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와 도가를 모순적인 관계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유가는 참여의 현실을 강조하지만 권위와 권력지향의 측면이 있다. 반면 도가는 자유로움을 구가하지만 회피적 은둔이 도인의 초탈로 위장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자유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도가가 현실을 무작정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함석헌과 장일순은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들에게 알려 준 셈이며, 결국 유가와 도가는 구체적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관계성을 조명하는 한 스펙트럼의 양면성일 뿐이다.

유가와 도가의 상징적 양면성으로부터 야기된 많은 이야기들은 함석헌과 장일순이 투쟁했던 정치권력의 내막을 짐작하게 해준다. 독재시대 무소불위의 권력구조 안팎을 좀 더 이해하려면 먼저 노자로 회자되는 도가적 상징성과 유가적 상징성의 충돌과 접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 앞 부분에서 장황하게 노자 해설을 늘어놓은 것이다.

무위의 지향점

참여의 나아감이라는 유가적 상징과 성찰의 물러섬이라는 도가적 상징은 마치 진자운동하는 진자추처럼 한쪽 끝까지 올라가면 다시 반대편 끝까지 흔들리며 중간에 서질 않고 왔다갔다 왕복운동을 한다. 마찬가지로 유가적 상징과 도가적 상징은 중간에서 쉽게 합쳐지질 못하고 양단을 왕래하곤 한다. 30년 동안이나 대낮에 시퍼런 칼을 휘두른 군부 독재권력이 너무나 극악무도하여 많은 민중들이 한동안 몸을 움치리고만 있었다. 몸을 움츠리고만 있다가는 아예 그 몸이 움치려진 채 굳어만 갈 것 같았다. 그래서 힘을 내어 항거를 시작했다. 함석헌과 같은 저항의 나침반이 있어서 많은 민중들은 그를 따라 힘을 낼 수 있었다. 함석헌 말고도 민주화를 이뤄낸 많은 저항운동가들은 우리들이 살기 위하여 나서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과 실천을 앞장 서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함석헌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돌아가시기 10년 전 78세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정치권력에 의해 구금당했으며, 장일순 역시 중립화 평화통일안 제안으로 인해 30대 때 옥고를 치른 후 군사정권 시절 내내 정치활동 정화법과 사회안전법 등의 제한적 조사 대상자였다. 그들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역사의 고통을 감내하였다. 그 고통을 삶의 지혜로 승화하는 나뭇대로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길과 역사의 길이 서로 연결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내면을 찾아가는 길이 성찰이다. 성찰의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참여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노자의 무위는 다양하게 해석되곤 하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무위無爲가 아니라 현실 참여라는 유위有爲의 방식을 바꾸자는 말이다. 함석헌과 장일순이 말하는 노자 사상의 무위란 유위로부터 도피하는 은둔과 초탈의 수동적 무위가 아니라 역지로 하지 말며(도덕경 29장), 딱딱하게 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며(43장,78장), 나서지 않고서도 싸움에 이기는 법을 터득한다면(69장), 결국 이득이 된다는 뜻에서(43장) 긍정적 무위를 말한다. 장일순은 도덕경 69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한다. “성인은 때로 은둔하지만 그것을 목적

으로 삼지는 않아. 나가서 싸울 때는 일어나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라.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 무심으로, 아무런 적극적 의미 없이, 맹목처럼 담백하게 처리하고 나아간다 이 말일세. 서산 스님이 국난을 당하자 떨쳐 일어나 적진에 뛰어들지 않는가? 그런 거지.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더냐 싶게 다시 묘향산으로 돌아가 앉아 계시는 거라.”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635쪽)

이러한 무위의 성찰을 통하여 함석헌과 장일순이 지향하려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은 통일된 하나의 도 혹은 전체를 얻으려 했음이다. 통일된 전체를 이룸하여 도라 불려도 좋고, 성聖이라 불려도 좋으며, 혹은 기氣라고 해도 좋고 태극이라 해도 좋다. 예수라도 좋고 부처도 좋으며 한얼도 좋다. 그 이름과 관계없이 통일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 전체가 사람을 노예로 하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인격적인 신도 아니며, 불변의 고정성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 전체는 오히려 (1)그 스스로 변화하지만 자신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어 스스로 그러한 자연함이며 (2)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재하며 (3)뜻 속에 전체가 있어서 우주적 진실과 자연적 사실이 일치되는 까닭이며, 그래서 도덕적 당위가 자연적 사실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4)전체이지만 씨알이나 좁쌀 한 알과 같은 작은 것에 자신의 전체를 다 드러낸다. 서양철학 혹은 서구 기독교에서 말하는 통일적 존재는 불변하며 정지성을 지니며, 또한 인간과 차별을 두는 절대적이고 최상위의 위계구조를 지닌다. 반면 함석헌과 장일순이 지향하는 통일된 전체는 그 스스로 변화하는 동력학적 전체를 이루고 있다. 동력학적이란 뜻은 전체의 힘과 뜻이 전체적으로 보전되어 규정된 존재가 없어진다해도 그 틀거리만 없어질 뿐 그 에너지는 다른 모습으로 남아 존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존재는 자신의 힘과 뜻을 통일 전체로부터 얻어내어 그 존속을 유지하며, 현재의 존재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경락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반영하기도 한다. 동학과 대중교는 이러한 통일된 전체를 기꺼이 생명이라고 부르려 했다. 이런 사상을 유명모가 발전시켰고 다시 함석헌과 장일순이 이어받았다. 특히 장일순은 이런 사상을 그의 독특한 생명사상으로 발전시켰다. 물론 함석헌은 장일순보다 앞서 일본 유학 시절 케이크 신앙과 만나고, 농사운동을 하며 해방 전후로 불경과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생명 사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삶은 신성하다는 신앙과 '속 생명'(Inward Life)을 통해 개체와 전체가 만난다는 철학이 연결되어 생명의 사상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함석헌을 이해하는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종교적 보편주의인데, 이 또한 그가 강조한 생명의 보편성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명사상은 노자의 무위 철학과 전통 기氣철학 일반 및 동학의 세계관이 만나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동력학적 존재론의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생명사상은 군부독재의 무한 권력에 저항했던 한 방식이기도 했다. 한국 민주화를 성공으로 이끈 운동의 외형은 매우 독특하다. 우선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된 간첩사건 외에는 지하 게릴라 운동이 없었고 대부분 노출된 운동조직이라는 점이다. 둘째 전문 정치인보다 시인 등의 문예인과 종교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종교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통일운동 및 민족운동에 비록 아슬아슬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운동 자체가 현실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추후 민주화운동의 많은 주축세력이 생명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생명운동가는 시대적 정신을 앞서가는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불려진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함석헌이며, 장일순이

다.

도구화된 신비주의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남아있다. 그 첫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후학으로 이어지는 생명사상의 계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성이 나타났다. 노자의 무위사상이 자칫 침잠과 은둔, 초탈과 무욕이라는 신비주의적 편협성으로 오해되듯이, 생명사상 역시 피비린내 났던 민주화운동이라는 진자주의 반동으로 이어진 신비화로 오도되기도 했다. 생명사상도 영성과 신령, 탈세간과 청정자연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곧 70-80년대 전세계 신비주의 시장을 휩쓸었던 신과학운동의 한국 상륙을 아주 쉽게 도와주었다. 신과학운동이란 처음에 과학을 비판하면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무반성적 비판운동이 되고 말았다. 현대과학의 이론이나 법칙들을 너무 안이하게 동양의 전통사상에 접목한다든가, 과학의 이성을 비판하지만 이성에서 도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물질과 기계 그리고 인간소외로부터 탈출한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 자본주의에 예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이후 그 에너지는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으로 연장되기도 했지만, 환경운동이나 사회생태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심층 생태주의를 고수하는 은둔청정형도 있었으며 혹은 명상과 영성운동으로 연장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계승을 보였다. 특히 군부독재를 끝장냈던 90년대 이후 세상과 담을 쌓고 깊은 명상으로 침잠하는 신비적 삶의 양식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출세간의 신비주의의 모습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착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했다. 군부독재는 물러갔지만 명상과 침잠 사이에서 신자유주의의 신형 독재가 시나브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함석헌은 도교의 초탈성을 핑계삼아 현실을 외면하는 국면을 우려하고 비판했는데, 결국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갔다. 장일순이 우려했던 무위의 무위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노자 무위의 진정한 철학은 사라지고, 몸 보신하는 양생과 처세술이라는 극도의 현실주의와 침잠과 은둔이라는 극도의 신비주의가 양단에 걸쳐 늘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학에 나온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수신하고 계가한 연후에 치국하고 평천하할 수 있다고 단계적으로 해석하곤 한다. 불행히도 이런 해석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적 언어일 뿐이다. 사람이려면 한 평생해도 못 할 수신이며 계가인데, 그것을 다 이루어야 겨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 치국과 평천하는 아예 입도 뺏긔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성 권력이 비판세력을 통제하려는 장치로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단계적 해석으로 뒤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 몸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 자가 감히 어디라고 정치권력에 간섭을 하느냐라는 기득권 전술에 말려 든 것이다. 권력의 도구로 된 도덕의 한 단면이다. 극단의 현실주의와 극단의 신비주의는 결국 이러한 기성 권력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전략에 속아 넘어간 결과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전략은 군사독재 정권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의 강령을 지켜주는 군신간, 부자간, 부부간 (三綱) 사랑의 도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사이거나 그런 도리가 인간관계를 차별하게 하는 철학적 근거로 남용될 경우 그것 또한 새로운 정권유지의 전략으로 전략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도

비판적 세력은 존재했다. 성리학의 고담준론과 유교 권력의 권위구조에 대한 반성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 하나의 반성은 이단으로 치부되었으나 면면히 이어 온 도가 해석이었다. 유학이 지배했던 조선 시대에도 아주 미미하지만 유가를 지켜보는 도가 공부는 존속되었다. 그런데 중국과 달리 조선시대는 도교를 더욱더 이단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조선시대 노자의 흔적은 많지 않다. 박세당의 도덕경 해석(新註道德經)이나 이이의 순언(醇言) 및 그의 몇몇 종에 지나지 않았다. 도가를 보는 조선의 해석들은 그 안에서 일체의 극단 신비주의나 극단 현실주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일반적 해석이 실제로는 일반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외래적인 것에 의해서 도구화된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조화된 생명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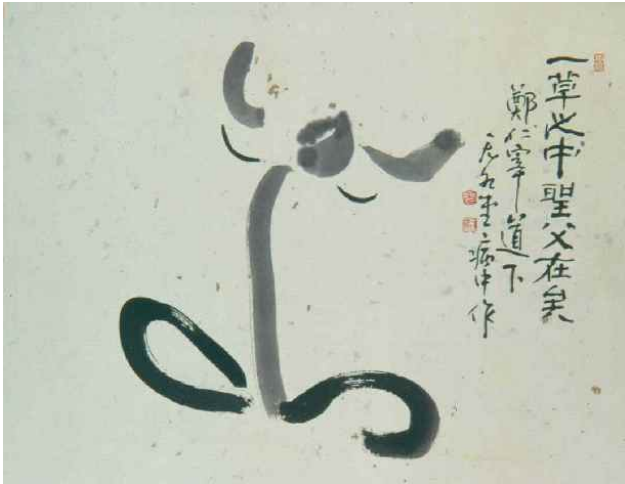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또 있다. 함석헌과 장일순의 생각과 달리, 혹은 후학들의 초발심과 달리 생명사상이 점점 교조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생명사상이 교조화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권력이다. 생명권력으로 교조화된 사람들은 생명사상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숭고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조화된 생명에 심취한 사람들은 생명 이미지가 갖는 우주적 차원의 포괄성과 전체성에 눈이 가려져서 작은 것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장일순은 항상 밑으로 기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던졌다. 큰 것은 존재의 명분이 분명하여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이론가가 될 수 있을지언정, 큰 것을 작은 것에 견주어 보지 못한다면 결코 사상가가 될 수 없다. 생명권력으로 교조화된 사람들은 이론가조차도 되기 어려우며 단지 생명의 전체성을 신앙으로 받드는 신앙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것도 자폐적 믿음일 뿐이다.

생명의 의미는 전체와 부분이 상호소통하는 체계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전체와 부분의 상호소통성을 아는 것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다들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그 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을 볼 수 없는 모양이다.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이 겸손하지 않다면 과연 설득력과 진실이 담겨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교조주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옳지만, 옳기만 할 뿐 살아있는 말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전체는 전체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은 것이 중요하고 낮은 것이 소중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함석헌 사상을 아무리 많이 알고 유명모 사상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큰 사상을 아주 작은 것에서 찾으려는 마음과 남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생명의 진실을 모르는 셈이 된다. 형이상학으로 볼 때 작으면서 전체인 것이 생명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생명은 곧 민중이 된다. 이 점은 함석헌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핵심을 놓치면 함석헌 철학이나 장일순 사상 모두가 종교가 되고 만다. 생명사상이 교조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면 말로만 낮아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의 행위는 가장 높아만 가니, 당연히 교회나 절이 웅장하고 하늘을 찌르듯 대형화 된다. 마찬가지로 생명사상 역시 씨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승의 말씀을 되뇌고 있지만 주변의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을 교조적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만 한다면 그것은 가장 반생명적이다.

역사를 읽는 생명

김상봉은 함석헌 철학에 관한 몇몇 소고에서 함석헌 사상이 철학과 종교의 결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2차 씨알사상포럼 발표자료집, 2008년10월) 함석헌에게서 철학과 종교를 분리하여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기성 철학이 텍스트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은 그 철학에서 믿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서 철학이 단순 지식체계에서 벗어나려면 살아 있어야 하고 철학을 살아 있게끔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은 궤쇄적 믿음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상관적 믿음이어야만 비로소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며,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평등한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명은 처음부터 생명일 수 없었다. 다시 말하거나와 생명사상의 증점은 전체가 부분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와 신, 성자와 도인 모두 아주 작고 낮은 것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도道와 신神, 성자와 도인이 크고 장대한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이미 성聖과 도道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거꾸로 증명한 꼴이다. 전체로서의 도는 거창한 말과 화려한 색깔로 드러나지 않으며 어느 산골짜기 작은 풀 한 잎에 드러날 뿐이다.



작은 것에 비로소 전체가 보여진다는 말은 형이상학이거나 폼나는 고담준론의 명제가 아니다.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에 눈감고 자기만의 성곽을 쌓는 신비주의를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통일된 전체를 보는 알량한 지식을 갖고서 남에게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만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권력일 뿐이다. <끝>